

中共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와 生産責任制

金 炳 洙

- | | |
|-----------------------------|---------------------|
| I. 問題의 提起 | III. 鄧小平體制의 農村經濟政策 |
| II.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와 鄧小平體制의 成立 | IV. 中國式 社會主義와 生産責任制 |
| | V. 結 論 |

I. 問題의 提起

1949년 정부수립 이후 中共의 정치지도자들은 中共社會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실시하였다. 中共에서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은 中國式 社會主義, 즉 毛澤東思想을 중심이념으로 삼고 있다. 毛澤東思想은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사회의 구체적 실체가 결합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中共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는 中國式 社會主義의 建設을 목표로 추구되고 있었다. 즉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과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이 결합되어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初期의 中共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는 農業合作社運動으로 시작하여 人民公社로 발전하였다. 毛澤東體制의 대표적인 農村經濟政策이었던 人民公社制는 社會主義段階에서 農業의 기본적인 요건과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 적실성을 상실하였다.

第11全大會 3中全會 이후 등장한 鄧小平體制는 人民公社制의 실패에 대한 反作用으로 中共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農業生産責任制의 실시를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農業生産責任制가 中國式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農業生産責任制는 社會主

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과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에 부합하는가? 農業生產責任制는 中共農村經濟를 社會主義的 形態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農業生產責任制의 실시 이후 中共內部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農業生產責任制가 낙후된 상태에 있는 中共農村經濟를 生産力 向上을 통하여 社會主義的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王首道는 “包產到戶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農業生產責任制가 거의 모든 農村地域에 보급되었다. 中共은 農業生產責任制의 실시로 土地改革과 合作社運動에 이어 세번째로 農業生產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¹⁾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農業生產責任制의 실시는 中共農村經濟를 資本主義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또 하나의 주장이 있다. 霍泛는 “農業生產責任制의 실시로 말미암아, 특히 包產到戶와 같은 政策은 社會主義를 背反하고 資本主義를 부활케 하는 것이며, 과거 30年間 이룩한 것을 하루 아침에 해방 전의 상태로 후퇴시켰다”²⁾고 비판하였다.

農業生產責任制의 실시를 통한 中共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農業生產責任制를 評價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前者는 農業生產責任制에 관하여 生産力 向上의 측면을, 後者는 個別的 經營의 측면을 강조하여 평가하였다. 이 두가지 주장은 모두 편협된 分析方法으로 農業生產責任制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 前者는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諸要件들을 무시하고 生産力만 向上되면 社會主義的 發展이 아니라 資本主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後者는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에 있어서 集團化를 강조하고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

1) 王首道, “責任制給湖南農村帶來新的生機: 湖南幾個地縣調查,” 「人民日報」(1981. 6. 5).

2) 霍泛, “正確認識聯產責任制,” 「人民日報」(1981. 10. 6).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農業生産責任制를 中國式 社會主義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農業生産責任制가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과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에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와 鄧小平體制的 成立

1.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Critique of Gotha Programme, 1875)에서 더 낮은 단계의 共產主義와 더 높은 단계의 共產主義 사이를 구별하였다.³⁾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더 낮은 단계를 '社會主義', 더 높은 단계를 '共產主義'로 정의한다.⁴⁾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社會主義는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였기 때문에 社會主義體制的 성격이나 그 과정을 수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형성하지 않았다.⁵⁾ 하나의 體制로서 社會主義는 러시아의 共產革命 성공 이후에 나타났다.

共產革命에 성공한 諸國家들은 社會主義를 건설하기 위하여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를 이룩하여 國家를 工業化하고 農業을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는 것이 필요하다.⁶⁾ 그러면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는 社會主義經濟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특성은 i)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 ii) 計劃經濟, iii) 搾取制度的 消滅, iv) 勞動에 따른 分配, v) 集團的·個別的 經營의 혼합형태, iv) 高度의 生産力과 높은 勞動效率性 등을 들 수 있다.⁷⁾ 이러한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특성과 더불어 農業分野에서

3) Tom Bottomore, ed.,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1983), p. 486.

4) *Ibid.*

5) Wu An-Chia, "Post-Mao Ideological Trends in Mainland China," *Issues & Studies*, (Oct. 1983), p. 13.

6) 金潤煥 編譯, 「政治經濟學 Ⅲ—社會主義經濟學의 本質과 諸問題」(서울: 인간사, 1986), p. 77.

7) 吳振邦, "關於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的深討—學習「鄧小平文選」", 「光明日

生産關係를 根本的·革命的으로 改造하여 農村에서 社會主義的 生産樣式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社會主義經濟를 조직하여야 한다. 그것은 農民의 經濟的 利益에 부응하고 보다 높은 勞動效率性和 신속한 生産力 發展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의 社會主義經濟이다.⁸⁾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i) 農業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 ii) 計劃經濟, iii) 勞動에 따른 分配, iv) 農業의 集團的 經營과 個別的 經營의 혼합형태, v) 고도의 農業生産력과 높은 勞動效率性이다.

農村에서 資本主義 經濟制度가 제거되는 형태, 방법, 속도는 각 나라에서 동일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각 나라의 具體的인 歷史的·經濟的·政治的 諸條件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⁹⁾ 따라서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위한 기준으로서 위의 5가지 요건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들이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에서 가지는 意義는 다음과 같다.

첫째, 農業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이다. 마르크스는 「경제철학수고」(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s)에서 “私的 所有體制는 勞動의 소외를 야기시키는 근원이다. 노동의 소외정향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私的 所有體制를 폐지해야 한다”¹⁰⁾고 하였다. 社會主義建設을 위하여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制는 폐지되고 社會的 所有制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社會主義段階에서 農業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는 두 형태로 존재한다. 즉 國家的인 全人民의 所有와 協同組合的·콜호즈的 所有의 형태이다.¹¹⁾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에서 결정적인 意義를 갖는 것은 小農民經營을 生産協同組合으로 조직하여 小商品生産者의 生産手段을 私的

報」(1983. 9.25) ; 中國共產黨章程(中國共產黨 第十二次全國代表大會 一九八二年九月六日 通過), 「光明日報」(1982.9.9) ; 張念眞, “中國式 社會主義分析” 「共產圈研究」, (1985. 6), p. 56 참조.

8) 金潤煥, *op. cit.*, pp. 85~86.

9) *Ibid.*, p. 83.

10) Wu An-Chia, *op. cit.*, p. 15.

11) 金潤煥, *op. cit.*, p. 134. 국가적인 사회주의적 소유라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 의해 대표되는 全人民의 소유이다. 협동조합적·콜호즈적인 사회주의적

所有에서 社會的 所有로 이행하는 것이다.¹²⁾ 이러한 農業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는 共產主義段階에서 生産手段의 全人民的 所有의 前段階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計劃經濟이다. 國民經濟의 계획성있고 균형있는 발전은 社會主義 經濟法則이다.¹³⁾ 이 법칙은 모든 經濟部門의 발전이 국가에 의한 단일적·계획적 지도를 따를 것, 그리고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과 요소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요구한다. 社會主義段階에서 경제발전은 국가에 의해서 調整·統制됨으로 국가중심의 計劃經濟가 필요하다. 따라서 社會主義 體制에서 農業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生産·分配되어야 한다. 計劃經濟로 農業은 他產業과 연관속에서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勞動에 따른 分配이다. 노동의 보편성은 社會主義의 조건하에서는 객관적 필연이다. 社會主義의 원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¹⁴⁾ 분배문제에 대해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共產主義의 낮은 단계(社會主義段階)에서 소비재의 분배는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社會主義段階에서는 勞動者가 제공하는 勞動의 質과 量에 따라 노동보수를 주고 그 범위내에서 家計生活을 계획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生産手段이 社會的 所有로 전환된 社會主義段階에서 개인적 소유의 획득은 각 개인의 노동에 기초한다. 즉 노동만이 生産物을 창출해내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段階에서 分配의 기준은 노동이 되는 것이다. 이 원칙은 社會主義經濟의 모든 부문에 꼭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農業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소유라는 것은 콜호즈나 협동조합단체의 소유이다.

12) *Ibid.*, pp. 87~88.

13) 소련과학아카데미연구소, 「經濟學敎科書」第3分冊(東京: 合同出版社, 1974), p. 709; 極東問題研究所, 「原典共產主義大系下」, 1985, p. 1858(제인용).

14) 金潤煥, *op. cit.*, p. 145.

15) 李相俊, “中國의 所得分配政策과 勞動管理,” 「中蘇研究」 제11권 제11호, (1987. 봄), p. 10.

네째, 農業의 집단적 경영과 개별적 경영의 혼합형태 유지이다. 조직속에 결집하여 社會主義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광범한 농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유일한 길이다.¹⁶⁾ 또한 농민경영을 生産協同組合으로 조직해 가는 것은 社會主義經濟 諸法則의 요구에 부응한 과도기의 合法則인 과정이다.¹⁷⁾ 小農民經營에서 集團化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社會主義農業은 완전한 集團化로의 이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集團化에 대한 의식이 고양될 때까지는 집단경영을 주로 하지만 개별적 경영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겸비할 수밖에 없다. 社會主義段階에서 농민들은 協同組合에 조직되어 있으며, 동시에 약간의 自留地를 가지고 개별적 경영을 한다. 따라서 社會主義段階에서 農業은 協同組合의 집단적 경영과 개인의 自留地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 경영의 혼합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農業生産力과 높은 勞動效率性이다. 이는 農業의 機械化를 통한 集團化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農業을 발전시키고 農産物에 대한 증대되는 전국의 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길은 全面的인 機械化와 일관된 集團化이다.¹⁸⁾ 農業의 機械化는 農業生産力 向上과 높은 勞動效率性을 가져올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이다. 工業化의 수준이 저급한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차선의 방법으로 生産者의 勞動積極性을 유도함으로써 農業生産力과 勞動效率性 向上을 가져올 수 있다. 社會主義段階는 共產主義段階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生産力 向上을 가져와야 한다.

위의 다섯가지 요건은 社會主義建設과 發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요건 모두가 社會主義的 改造, 즉 初期 社會主義段階에 있는 모든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 두 요건을 약화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農業의 社會

16) 廖魯言, "中國의 農業集團化," 「北京周報」 5號, (1963.11), p.9; 極東問題研究所, *op. cit.*, p.1753(제인용).

17) 金潤煥, *op. cit.*, p.80.

18) 蘇聯共產黨, 「蘇聯共產黨綱領 1961」(Moscow: Progress Press, 1967), p.86; 極東問題研究所, *op. cit.*, p.1883(제인용).

主義的 改造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社會主義體制의 필연적인 산물인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와 노동에 따른 분배는 반드시 견지되어야 한다. 또한 社會主義的 發展을 위하여 生産力의 향상, 즉 고도의 農業生産力과 높은 勞動效率性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 鄧小平體制의 成立

中共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는 農村의 個別經濟를 集團經濟로 통합해 가는 과정으로 시작되었다. 中共은 정부수립 이후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過程에서 서로 연결된 세 단계의 걸차를 택했다.¹⁹⁾ 첫번째는 共產革命 직후에 個人經濟를 기초로 한 集團勞動의 互助組織(품앗이반)을 널리 발전시킨 것이다. 두번째는 互助運動을 기초로 토지를 출자하고 통일적인 경영이라는 특징을 갖는 農業生産協同組合을 발전시킨 것이다. 세번째는 土地와 주요 生産手段의 集團化를 실행한 완전한 社會主義的 性質의 農業生産協同組合을 조직한 것이다. 이 세 단계의 개혁 이후 中共은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에서 全人民의 所有로 전환하는 '人民公社制'를 실시하였다. 毛澤東體制의 대표적인 農村經濟政策인 人民公社制는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 중 세 가지에 부적합하였다. 첫째, 勞動에 따른 分配가 아닌 平均主義的 分配政策을 실시하였다. 둘째, 農業의 集團的 經營과 個別的 經營의 혼합형태가 아니라 전면적인 集團化를 실시하였다. 셋째, 고도의 農業生産力과 높은 勞動效率性을 가져오지 못하고 農業의 낙후성을 그대로 존속시켰다. 따라서 人民公社는 中共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이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毛澤東體制를 계승한 華國鋒의 農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大寨로부터 배우자"라는 기치하에 毛澤東式 農村經濟政策을 계속 추진하였다.²⁰⁾ 이러한 華國鋒의 農村經濟政策은 침체된 中共의 農村經濟를 발전시키지 못

19) 劉少奇, "在中國馬列主義的勝利," 「劉少奇主要著作集」第四卷(北京: 外文出版社, 1963) pp. 199~200; 極東問題研究所, *op. cit.*, p. 1756 (재인용).

20) Ch'en Po-Wen, "Agricultural Problems in Mainland China Arising from

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人民公社에 대한 農民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누적되어 약간의 機械化로서는 農業生産力 向上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을 고려할 때 農業生産力 向上을 위한 근본적인 요건은 農民의 勞動積極性 유도이다. 따라서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 農民들의 勞動積極性 유인을 통한 生産力 向上에 政策의 초점을 집중시켰다.

鄧小平一派는 華國鋒의 毛澤東式 대규모의 集團化를 통한 農業現代化 달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改革派들은 華國鋒의 '2대법시'를 비판하고 實用主義路線의 추구를 주장하였다. 鄧小平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요모순으로서의 階級鬭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항에서 주요모순은 날로 증대되는 인민들의 物質的 要求와 저급한 生産力間의 모순이다"²¹⁾라고 하였다. 鄧小平體制는 生産力 向上을 통하여 4個現代化 달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개혁파들은 집단화를 통한 平均主義보다는 能率主義에 근거한 農業生産責任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平均主義思想은 社會主義의 노동에 따른 분배법칙을 시행하는데 심각한 장애이며, 平均主義의 범람은 필연적으로 生産力 向上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社會主義社會가 社會成員의 物質과 文化生活水準을 점차 제고하여 모두가 부유해지는 것은 완전한 平等과는 다르며, 완전한 平等일 수도 없다. 共同의 富裕를 완전한 平等과 동일한 속도의 부유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반드시 共同의 貧窮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부 지역, 일부 기업 및 일부 사람이 근면하게 노동하여 먼저 부유해져야만 다수의 사람에게 강렬한 호소와 고무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이 점차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²²⁾ 이것은 能率主義가 中共에

'Learn from Tachai', *Issues & Studies* (Oct. 1980), p. 60.

21) 中國共產黨, "關於建國以來黨的苦于歷史的問題的 決議," (一九八一年 六月 二十七日 中國共產黨 第十一屆中央委員會 第六次全體會議 一致通過), 「人民日報」(1981. 7. 1).

22) 全擇元, "中國社會主義理念的 變化와 지속," 「中蘇研究」 제10권 제 4호, (19

서 社會主義建設의 한 선택지로써가 아니라 本質的 變質로서 등장한 것임을 나타낸다.²³⁾

鄧小平體制的 成立 이후 中共의 農村經濟政策은 實用主義路線에 따라 生産責任制가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鄧小平體制的 이러한 政策的 轉換은 中共政治體制的 中心思想이 되어온 毛澤東思想과 矛盾되는 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鄧小平體制는 이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毛澤東思想을 再評價하지 않을 수 없었다.

鄧小平體制는 實用主義路線을 毛澤東思想으로부터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實用主義에 근거하여 毛澤東思想의 絕對性을 비판하였다. 毛澤東의 無誤謬性에 대한 비판은 華國鋒의 '2대법시'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毛澤東思想은 항상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이론이나 사상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實踐'을 통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實踐을 통하여 진리를 검증하는 것은 '포에르바하에 대한 테제(Theses on Feurbach)'에서 마르크스가 형성한 이론이다. 마르크스는 "人間的 思考와 知識은 實踐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고, 정확히 될 수 있다"²⁴⁾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鄧小平은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思想이 실제의 상황에 맞지 않을 때에는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²⁵⁾라고 하였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思想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는 그것이 실천속에 던져져서 現實의 검증을 받을 때 비로소 증명되는 것이며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²⁶⁾ 따라서 毛澤東思想도 진리이기 위해서는 다시 實踐속에 던

86, 겨울), p. 29.

23) 中國共產黨,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黨 12期 3中全會, 1984. 10; *Ibid.*, p. 27 (재인용).

24) Chiang Hsin-li, "The Theoretical Struggle on the Chinese Mainland: The New Phase," *Issues & Studies* (Feb. 1979), pp. 36~37.

25) 鄧小平, "在全軍政治工作會議上白講話," 「鄧小平文選 1975~1982」(北京: 人民出版社, 1983), p. 113.

26) *Ibid.*

저져서 현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毛澤東의 無過誤論의 부정인 동시에 毛澤東思想의 絕對性에 대한 부정이었다.

鄧小平體制는 毛澤東 개인과 毛澤東思想을 분리시키므로써 毛澤東 개인 승배를 배격하였다. 더불어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毛澤東의 업적을 비판·수정할 수 있게 하였다. 즉 毛澤東이 말년에 가서 大躍進運動과 文化大革命의 극좌과격노선을 걸음으로써 社會主義建設에 커다란 過誤를 저질렀음을 비판할 수 있게 하였다. 반면 毛澤東思想은 그의 개인적인 사상이라기보다는 中共黨이 장기간의 革命鬭爭과 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 얻어낸 集團의 智慧이기 때문에 여전히 中共의 指導理念이며 앞으로도 指導理念으로 존속해야 된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과거의 毛澤東思想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毛澤東의 개인적인 이미지는 中共大陸人民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격하되고 있다. 과거 28년 동안 주된 政治理念이었던 毛澤東思想의 재평가는 객관적인 현실 뿐만 아니라 鄧小平體制의 주관적인 요구가 결부되어 나타났다.²⁸⁾ 이러한 鄧小平體制의 요구는 굳건한 지지와 함께 더 좋은 지위를 부여하였다. 즉 鄧小平體制는 毛澤東思想의 재평가를 통하여 改革政治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Ⅲ. 鄧小平體制의 農村經濟政策

鄧小平體制의 등장에 따라 4個現代化의 달성을 위한 實用主義路線의 추구가 구체화되었다. 文化大革命 이후 낙착된 中共의 經濟狀態는 4個現代化의 달성을 통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中國의 저명한 經濟學者 千光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現在 中國은 강력한 近代的 社會主義國家로 전환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27) Yoo Se-Hee, "Ideological Implications of China's Economic Reforms," in Rhee Sang-Woo, ed., *China's Reform Politics* (Seoul: Sogang Univ. Press, 1986), pp. 43~44.

28) Chiang Hsin-li, *op. cit.*, p. 61.

달성하기 위하여 改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改革은 生産關係의 改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응하도록 政治的·法的 上部構造와 社會的 理念도 改革되어야 한다.”²⁹⁾ 鄧小平體制에 의해 실시된 改革政治는 4個現代化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農村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第11全大會 3中全會와 農村經濟政策

中共政治에 있어서 第11全大會 3中全會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革命의 성공 이후 계속된 毛澤東時代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鄧小平時代로 전환된 것이다. 단순히 人物의 교체가 아니라 社會主義建設에 있어서 路線의 變革이 일어난 것이다. 구시대의 急進的·集團的·平均主義的 社會主義建設은 漸進的·個別的·能率主義的 社會主義建設로 전환되었다. 또한 社會主義建設에 있어서 大衆動員은 政治的 尤인이 아니라 物質的 尤인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路線의 變化는 당연히 세부적인 政策에 있어서의 變化를 수반하였다.

鄧小平一派的 經濟改革政策은 1978年 5月 家計副業, 市場, 自留地의 할당을 중심으로 農業集團化에 극적인 變化를 가져왔다. 이러한 變化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集團化를 추구하던 人民公社의 構造的 變革을 수반했다. 鄧小平一派는 農業生産의 第1線인 生産者의 강화와 그 독립성을 강조하게 되었다.³⁰⁾

第11全大會 3中全會(1978. 12. 18~22)는 農業政策의 變化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이 3中全會에서 農業政策에 관한 장기적인 분쟁이 해결되어 自留地, 農家副業, 自由市場이 社會主義經濟建設에서 필요한 보완책이며, 人民公社制의 人民公社, 生産大隊, 生産隊의 3개 所有制

29) Yu Guanguan, "Reform During Socialist Construction in terms of World and Chinese History," *Social Sciences in China*, vol. VI, no. 3, (Sep. 1985, Beijing), p. 23.

30) 胡橋木, "按照經濟規律辦事, 加快實現四個現代化," 「人民日報」(1978. 10. 6).

에서 生産隊를 기본적인 회계단위로서 그 기능을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³¹⁾ 또한 3中全會에서 人民公社 運營規定을 포함하여 두가지 결정을 하였다. 하나는 生産隊를 3~5 家口로서 구성되는 소규모의 작업소조로 세분화하며, 다른 하나는 이들 작업소조가 만년 또는 1년간 農地, 種子로 쓸 곡물, 농기구를 계약하여 책임지고 경작하는 請負責任制를 실시키로 하였다.³²⁾

農村經濟政策과 관련하여 3中全會는 두 가지의 중요한 政策文件을 발표하였다. 첫째는 「中共中央關於加快農業發展若干問題的決定」이고, 둘째는 「農村人民公社工作條例」이다.³³⁾ 前者는 農村經濟와 農業發展에 관한 認識과 구체적 政策이 언급되어 있고, 後者는 人民公社의 組織·管理·機能에 대한 政策을 제시하였다.

이 두가지 政策文件에서 中共政治指導者들은 다음과 같은 政策을 표방하였다.

첫째로, 農業은 國民經濟의 기초이며, 農業의 비약적인 발전만이 4個 現代化를 달성시킬 수 있는 근본조건이 된다고 선언하였다.

둘째로, 과거의 경험을 분석해 보면 階級鬭爭을 강조하는 좌파적인 政策은 農業發展의 퇴보를 초래하였다. 앞으로는 절대로 階級鬭爭을 확대하여 生産活動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며, 自然規律과 經濟法則에 의거하여 農村經濟工作을 지도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셋째로, 人民公社, 生産大隊와 生産隊의 所有權과 自主權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변경하거나 침해

31) 金永俊, 「毛澤東思想과 鄧小平의 社會主義」(서울: 亞細亞文化社, 1985), p. 406.

32) Jürgen Domes, "New Policies in the Commune: Notes on Rural Societal Structures in China 1976~1981,"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LI, no. 2, (Feb. 1982), p. 256.

33) "中央關於加快農業發展若干問題的決定(草案)," 「中共研究」 제13권 제5호, (1979. 5. 15), pp. 150~162; "農村人民公社工作條例(試行草案)," 「中共研究」 제13권 제6호, (1979. 6. 15), pp. 139~152.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최하단위 生産隊의 勞動力과 土地, 資金 등을 전용할 수 없으며, 農業基本建設이나 소규모의 地方企業을 위하여 勞動力이나 자금을 동원해야 할 경우에는 각 단위간의 相互利益을 존중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上級單位의 간섭을 견제하였다.

네째로, 農村經濟政策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資本主義이고 어떤 것이 社會主義인지를 분명히 認識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즉 社隊의 多種經營은 社會主義經濟이며, 社員들에게 허용된 自留地, 家庭副業, 그리고 農村自由市場은 社會主義經濟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 그것을 資本主義經濟라고 비판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다섯째, 人民公社의 各급 經濟組織은 社會主義 分配原則에 따라서 勞働量과 能力에 의하여 公正하게 所得分配를 실시하여야 하며, 平均主義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第11全大會 3中全會는 과거의 잘못된 農村經濟政策을 中共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鄧小平體制는 農村經濟政策으로 生産責任制를 채택하였다. 中共은 최근들어 3中全會의 歷史的 意味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3中全會 이래 제기되었던 實踐上的 名제들을 정확하게 관철할 것을 주장하면서, “第11全大會 3中全會의 路線은 우리 黨의 歷史的 敎訓에 바탕을 두어 制定한 것이며, 3中全會 이래의 8년간 실천적 경험은 中共의 富裕強盛을 위한 유일·정확한 路線임을 증명하였다”³⁴⁾고 하여 그 歷史的 意味를 재인식하였다.

2. 人民公社의 改革

鄧小平體制는 第11全大會 3中全會 이후 1980년 9월 제5기 全人代 3次會議에서 「七十五號文件: 더욱 一步農業生産責任制를 강화하고 完成하는 몇가지 問題에 관하여」³⁵⁾를 채택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中共의 農

34) 人民日報評論員, “全面正確地貫徹三中會以來的路線,” 「人民日報」(1987. 2. 22).

35) (半月談), 제 8호(1987. 4. 25)에 게재됨.

村經濟政策은 사실상 文化大革命 이전의 三自一包制(自留地·自由市場·自營, 그리고 各戶請負制一包產到戶制)로 복귀하였던 것이다.³⁶⁾ 이는 人民公社 農業集團化를 無用之物化하고 農業經營에 각 家戶가 責任請負(즉 包產到戶)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農地를 個人에게 契約에 의해 分配함으로써 과거의 小作制와 유사하게 되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人民公社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人民公社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단지 構造的 改革에만 그쳤다. 여기서 鄧小平體制의 改革의 限界를 볼 수 있다. 鄧小平體制의 改革은 점진적인 개혁이며, 社會主義發展을 위하여 生産力 向上을 위한 개혁이다. 따라서 기존의 人民公社를 하나의 農村經濟制度로서 존속시키면서 生産力 向上을 위한 生産責任制를 실시하였다.

人民公社는 두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대규모 集團 生産과 平均主義的 分配政策(吃大鍋飯)을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는 政權 組織과 經濟組織의 성격을 혼합한 '政社合一'³⁷⁾ 體制를 취하고 있다. 政社合一體는 集團所有制의 人民公社經濟를 관리하는데 全人民所有制 經濟의 관리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人民公社의 經濟組織上 問題點은 두가지 면에서 나타났다.³⁸⁾ 첫째는 人民公社의 管理에 있어서 黨과 行政이 혼합되어 있고(黨政不分), 行政과 企業經營으로서의 기능이 구분되지 않았다(政企不分). 이러한 體制下에서는 公社의 업무가 맹목적인 지휘에 의하여 처리되기 쉽고, 經濟的 合理性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할 일들이 行政의 지휘계통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두 번째는 生産隊를 기초조직으로 한 三級所有制를 채택하여 平均主義的 分配政策을 실시한 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機械的 行政單位로서 生産隊에서의 勞動은 積極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平均主義的 分配政策으로는 勞動의 自發性과 積極성을 유인할 수 없

36) 金河龍, 「中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84), p. 186.

37) 여기서 '政'은 行政機構로서의 人民公社를, '社'는 經濟組織으로서의 人民公社를 말한다.

38) 李股浩, "理中共의 農村經濟體制 改革," 「中國研究」(1984), pp. 74~75.

었다. 따라서 人民公社의 改革은 이 두가지 問題點을 수정하는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다.

行政組織과 經濟組織으로서의 人民公社를 단순한 經濟組織으로서의 人民公社로 改革한다(政社分離). 中共人民公社의 '政社分離' 방침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것이다.³⁹⁾ 첫째, 農村에 鄉政府를 回復·建立시켜 人民公社의 기층정권단위로서의 職能을 담당케 한다. 農村 人民公社는 단순한 經濟組織으로서 운용하며, 간부의 임금은 國家가 아닌 人民公社의 公積金에서 지불한다. 둘째, 區域 鄉政府의 규모는 어느정도 크게 할 수도 있으므로 몇 개의 人民公社와 全民所有制의 單位(銀行, 商業 등)를 관할할 수 있게 한다. 區域鄉政府는 人民公社의 세부사무를 간섭할 수 없으며, 다만 經濟的 方法의 운용을 통해서만 農業生産·發展을 유도하고, 經濟的 契約의 집행을 감독하거나 仲裁할 수 있게 한다. 셋째, 人民公社의 '生産隊를 기초로 하는 三級所有體制'를 取消하고 生産隊를 독립적인 農業生産合作社로 만든다.

人民公社의 組織體制에 대한 改革은 다음과 같다.⁴⁰⁾ 첫째, 人民公社의 '三級所有 隊爲基礎'體制를 取消하고 生産隊를 독립적인 農業生産合作社로 개편하였다. 둘째, 合作社의 규모는 50년대의 初級社의 규모를 참작하되 現在의 20~30戶보다 약간 크게 한다. 合作社는 農業 외에도 副業이나 手工業을 독립적으로 經營하고 商品生産을 發展시켜 現金收入을 증대할 수 있게 한다. 셋째, 公社의 各항 社業이 生産隊에 부담이 되었던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合作社는 자발적으로 '聯合社'⁴¹⁾에 참가하거나 탈퇴할 수 있게 한다. 즉 같은 人民公社의 事業이라 하여도 經濟的 合理性에 따라 참가하거나 탈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生産隊의 독립은 人民

39) *Ibid.*, p. 76.

40) *Ibid.*, p. 79.

41) 聯合社는 聯社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人民公社에서 行政的으로 혹은 自動的으로 조직되는 經濟聯合體가 아닌 生産隊를 구성단위로 하여 經濟的 合理性에 따라 자발적으로 成立하는 經濟聯合企業이다.

公社內의 平均主義의 分配를 철폐하여 物質的 유인으로 勞動效率性을 向上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人民公社의 改革은 두가지 측면에 目的이 있었다. 첫번째는 政社合一로 나타나는 經濟的 非效率性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集團化를 통해 실시된 平均主義로 인하여 農業生産力의 낙후된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體制는 生産責任制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人民公社를 해체하였지만 名目上으로는 남겨두고 있다.

3. 生産責任制

第11全大會 3中全會 이후 中共은 農業의 集團化라는 劃一의 方法을 탈피하였다. 集團生産中에서 平均主義(吃大鍋飯)의 矛盾을 극복하여 農民의 積極的 生産活動을 불러 일으킬 일련의 政策을 채택하였다. 여기서 채택된 제도가 '農業生産責任制'이다. 農業生産責任制는 1982년 4월 中共中央이 발표한 「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文件에 의하면 이미 90% 이상의 中共農村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⁴²⁾ 1982년 9월에 열린 第12全大會에서 農業生産責任制는 현재 가장 중요한 政策이라고 확인되었다. 이 會議에서 胡耀邦은 "農村에서 勞動人民의 集團所有制는 合作經濟의 주요한 經濟形式이다. 최근 몇년동안 農村에서 수립된 갖가지 生産責任制는 生産力을 더욱 향상시킨 것으로 앞으로 장기간 견지해야 한다. 다만 軍중의 經驗을 총정리하여 더욱 완벽하게 하고 절대로 軍중이 바라는 바를 경솔하게 위반한다거나, 옛 制度로 回歸해서는 안된다"⁴³⁾라고 하였다.

生産責任制는 그 성격에 따라 5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包產到戶責任制이다. 包產到戶는 生産隊의 統一指導, 統一計劃, 統一會計, 統一分配의 전제하에 대부분 혹은 全部의 耕地를 各 農家單位

42) 中共中央轉發, "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 「人民日報」(1982. 4. 6).

43) 胡耀邦, "全面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二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一九八二年 九月 一日), 「光明日報」(1982. 9. 8).

에 나누어 기본적으로 農家를 단위로 하여 生産하며, 각 農家は 일정한 生産量, 投資 등을 떠맡고, 超過生産에 대하여는 장려하고 減産에 대하여는 罰을 가하는 生産責任制이다.⁴⁴⁾ 集團耕地의 責任分配는 社員들이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고 勞動力을 감안하여 劃分하고 있다. 生産隊의 幹部는 社員과 똑같이 土地를 할당받고 있다. 人口計劃을 장려하기 위하여 獨身女證을 가진 女社員에게도 합당한 분량의 責任을 맡기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分配된 土地의 크기와 劃分은 生産增大를 제일 먼저 고려한 후 결정한다. 生産의 連續性和 地力培養을 보장하기 위하여 土地의 承包(責任割當) 후 일정기간은 변동시키지 않는다. 社員이 承包한 土地는 물론 耕作權만 있는 것으로 賣買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集團所有의 家畜은 고정된 家庭에 分配하되 統一的 價格設定을 실시하고, 각 農家は 이에 따라 합당한 金額을 公費기금에 넣는다.

둘째, 包乾到戶責任制이다. 包乾到戶는 生産隊의 主體의 地位와 基本生産資料의 公有制를 견지한다는 원칙하에서 生産隊의 耕地를 각 農家に 責任지워서 耕作하는 것이다.⁴⁵⁾ 家畜이나 農具는 고정된 農家를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사용하게 한다. 그 특징을 보면 社員은 國家와 集團에 남부하여야 할 責任分量을 제하고 남는 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國家에 納付하고 集團에 남겨야 하는 分量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 所有로 함으로써 社員들의 經濟利益이 包產到戶보다 더 직접적이게 된다. 大·中型 農業機械, 水利施設 등은 生産隊가 統一的으로 管理하고 使用한다. 集團經營에 적합한 工業이나 副業生産은 生産隊가 統一經營하고, 國家가 공급하는 農具 및 物資는 生産隊가 計劃을 세워 각 農家に 分配, 각자 購買하여 使用케 한다. 기타의 耕地, 家畜, 農具의 구체적 責任割當方法은 包產到戶와 기본적으로 같다. 각 農家は 각종 義務勞動 이외에도 農地建設이나 기타 集團負役의 責任을 수행해야 한다.

44) 李殷浩, *op. cit.*, p. 80.

45) *Ibid.*, p. 81.

세제, 專業承包, 聯產計酬責任制이다. 이것은 '四專一聯'이라 부르기도 한다. 生産隊가 本地의 自然資源, 勞動力, 技術條件 및 生産의 發展程度 등을 근거로 하여 統一經營과 分工·協業의 원칙하에 農林·副·漁·工·商業 등을 專業組, 專業戶, 專業人 등에게 分別적으로 責任지우는 聯算計酬責任制이다.⁴⁶⁾ 기본적인 특징은 專業에 따라 일을 分配하고 勞動者의 專門性에 맡겨두는 것이다. 生産過程中的 各種 作業은 生産隊가 필요에 따라 통일할 것은 통일하고 나눌 것은 나눈다. 責任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統一分配를 하되 增產·減產分에 대해서는 장려와 벌칙을 가한다. 生産隊와 각 生産責任者는 各種 경제지표에 관하여 契約式으로 결정하되 최소한 몇 년은 변하지 않도록 한다.

네째, 統一經營, 聯產到勞責任制이다. 이 制度의 특징은 勞動力을 기준으로 耕地를 責任分配하는 것으로 勞動은 統一되는 것도 있고, 분산되는 것도 있다.⁴⁷⁾ 구체적인 實行方法은 다음과 같다. '三不變'⁴⁸⁾의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하에서 生産隊는 각 勞動力(勞動者)別로 '四統一'⁴⁹⁾, '五定獎'⁵⁰⁾制를 실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包產到組·聯當計酬責任制이다. 이것은 '三包一獎'制, 혹은 '五定一獎'制라고도 부른다. 生産隊의 統一領導, 統一計劃, 統一會計, 統一分配의 원칙하에서 生産作業의 성격에 맞추어 作業組, 分組를 조직하고 作業分配하는 制度이다.⁵¹⁾ 生産隊는 作業組에 대하여 責任맡게 될 產量(혹은 產值), 工分生産費用을 결정한다. 責任맡은 分量의 부분에 대하여

46) *Ibid.*

47) *Ibid.*

48) '三不變'이란 生産資料의 集團所有制 不變, 按勞分配原則 不變, 基本會計單位의 不變이다.

49) '四統一'이란 統一的 耕作計劃, 集團所有의 農畜과 大·中型 農機具의 統一의 使用, 統一的 水利管理과 災害對策, 統一的 會計와 分配를 말한다.

50) '五定獎賠'란 勞動力, 土地割當, 費用, 生産量, 作業割當을 정하여 超過生産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주고, 生産未達에 대하여는 賠償케 한다는 것이다.

51) *Ibid.*, p. 82.

는 統一分配를 실시하고 超過量이나 不足量에 대하여는 각각 장려금이나 벌칙을 정하였다.

現在 中共農村에서는 生産量과 分配를 직접 연결시키는 生産責任制를 실시하는 生産隊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生産責任制中에서 包産到戶, 包乾到戶, 專業承包, 聯産到勞 등의 責任制는 점차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包産到組의 형태는 감소하고 있다.

IV. 中國式 社會主義와 生産責任制

鄧小平體制는 第11全大會 3中全會 이후 中共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로서 生産責任制를 실시하였다. 生産責任制는 기존의 人民公社가 취했던 集團의 經營에서 탈피하여 個別的 經營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生産責任制의 실시와 더불어 中共農村經濟에는 自留地, 家計副業, 自由市場 등의 허용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初期 社會主義段階에 있는 中共의 農業生産力 增大와 農民들의 生活水準 向上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도입이 中共의 農村經濟를 資本主義로 전환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지만 生産責任制는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과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이 결합되어 나타난 中國式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인 것이다.

1. 社會主義農業의 基本的인 要件

生産責任制가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에 어느정도 부합하는가 하는 점은 生産責任制의 社會主義的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第2章 第1節에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5가지 요건을 가지고 生産責任制의 성격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業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이다. 高級農業生産合作社段階에서 中

共의 農業生産手段은 私의 所有에서 社會的 所有로 전환되었다.⁵²⁾ 鄧小平 體制의 生産責任制는 土地耕作權이 個別家戶에 이양됨에 따라 土地의 所有制가 다시 私의 所有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1981년 10월 全國農村工作會議에서 中共黨은 “生産責任制의 실시에 있어서 土地 등 基本生産資料의 公有制는 장기적으로 불변하는 정책이다”⁵³⁾라고 선언하였다. 生産責任制의 生産手段은 社會的 所有이며, 契約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個人에게 分배되어진다. 個人은 生産手段의 所有權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使用權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진다. 또한 中共黨은 農業生産責任制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土地의 集團所有制를 견지해야 하고, 集團所有의 土地나 財產을 分割하거나 私용으로 轉用하는 것을 엄금하였다.⁵⁴⁾ 이러한 中共黨의 입장을 고려할 때 生産責任制는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를 기초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計劃經濟原則의 고수이다. 中共의 計劃經濟는 商品經濟를 보조적 수단으로 취하고 있다. 中共黨은 현재 改革하고 있는 商品經濟를 겸비한 計劃經濟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⁵⁵⁾ i) 中共의 經濟改革은 計劃的인 商品經濟로서, 그것은 완전한 市場메카니즘에 의존하는 市場經濟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ii) 완전한 市場메카니즘에 의하여 조절되는 生産과 交換은 일부의 農業, 農業副產物, 日用雜貨, 서비스 및 修理業과 같은 부문에 적용되며, 이들 부문은 國民經濟의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이다. 生産責任制는 國民經濟의 主要部分인 農業發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國家의 計劃經濟의 中心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生産責任制의 실

52) Alexander Eckstein, *China's Economic Revolution* (Cambridge Univ. Press, 1977), p. 71.

53) 全國農村工作會議 總給交流驗部署令後工作, “責任制長期不變, 堅持集體化方向,” 「人民日報」(1981. 10. 22).

54) 中共中央轉發, *op. cit.*

55) 安錫教, “中國의 經濟開發理念,” 「中蘇研究」 제11권(1987, 여름), p. 21.

시에 따라 個人이 획득한 剩餘農産物을 自由市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計劃經濟의 보조적인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高橋滿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計劃經濟의 실현과 價値法則의 운용 및 商品經濟의 發展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相互補完的·統合的인 것”⁵⁶⁾이라는 것이다.

세째, 勞動에 따른 分配原則의 고수이다. 生産責任制는 平均主義를 배제하고 能率主義를 지향한다.⁵⁷⁾ 生産責任制의 諸形態에서 모두 生産의 割當量에 대한 責任이 個人에게 있음이 명시되고 있다. 즉 열심히 努力하여 超過生産을 하면 더 많은 剩餘物을 획득하는 대신에 減産하게 되면 스스로가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生産增大와 高度成長을 위하여 과거의 平均主義와 政治的 誘因보다는 物質的 誘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⁵⁸⁾ 生産責任制는 能率主義에 근거하여 勞動에 따른 分配原則을 견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째, 農業의 集團의 經營과 個別的 經營의 혼합형태의 유지이다. 生産責任制가 個別家戶 水準에서 生産活動을 하고 있는 까닭에 個別的 經營을 강조하고 있다. 生産責任制의 실시와 더불어 自留地의 확대, 家計副業의 허용 등으로 個別的 經營이 증가되고 있지만 生産責任制는 근본적으로 生産隊를 中心으로 한 集團의 經營을 견비하고 있다. 中共黨은 農業生産責任制의 실시로 인하여 社會主義農業의 集團化에 變化가 있어서는 안되며, 基本生産資料의 公有制 不變과 더불어 生産隊와 生産大隊는 集體經濟組織으로서 필요한 기능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⁹⁾ 그러나 生産責任制의 실시를 통하여 生産力 向上에 역점을 두고 있는 中共政治指導者

56) 高橋滿, “中國 經濟改革의 論理와 課題,” 安錫教編, 「中國經濟의 政治經濟學」(서울: 北峰出版社, 1986), pp. 171~172.

57) 金擇元, *op. cit.*, p. 25.

58) 崔宜喆, “中國의 經濟改革과 多國籍企業,” 「中蘇研究」 제11권 제 1호, (서울: 漢陽大學校 中蘇研究所, 1987), p. 76.

59) 中共中央轉發, *op. cit.*

들은 集團的 經營보다는 個別的 經營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中共 政治指導者들이 인식하듯이 農業生產責任制는 集體經濟單位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集團的 經營과 個別的 經營을 어떻게 잘 혼합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鄧小平體制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問題 中的 하나인 것이다. 결국 生產責任制는 個別的 經營을 강화시키고 있으면서 制度的으로 集團的 經營의 혼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高度의 農業生產力과 높은 勞動效率性의 유지이다. 鄧小平 體制的 生產責任制 실시 이후 1978~79년에는 년 8% 정도의 食糧生産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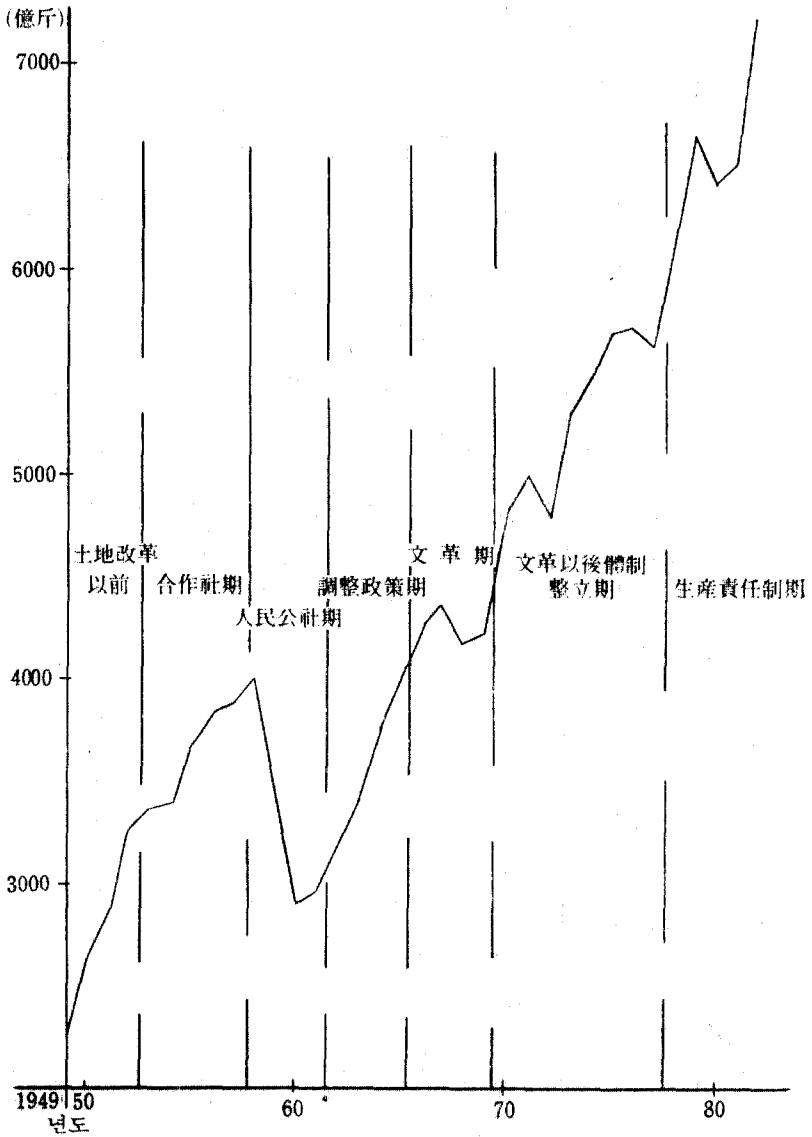
〈표 1〉

食糧生産力 變化(1949~1983)

년 도	식 총 산 량	년 생 증 가	간 산 율	비 고	년 도	식 총 산 량	년 생 증 가	간 산 율	비 고
'49	2,263.6				'67	4,356.4	1.8		
'50	2,642.5	16.7			'68	4,181.1	-4.0		
'51	2,873.7	8.7			'69	4,219.4	0.9		
'52	3,278.3	14.0			'70	4,799.1	13.7		
'53	3,336.6	1.7			'71	5,002.8	4.2		
'54	3,390.3	1.6			'72	4,809.6	-3.9		
'55	3,678.7	8.5			'73	5,298.7	10.2		
'56	3,854.9	4.8			'74	5,505.4	3.9		
'57	3,900.9	1.2			'75	5,690.3	3.4		
'58	4,000.0	2.5			'76	5,726.1	0.6		
'59	3,400.0	-15.0			'77	5,654.5	-1.3		
'60	2,870.0	-15.6			'78	6,095.3	7.8		
'61	2,950.0	2.8			'79	6,642.3	9.0		
'62	3,200.0	8.5			'80	6,411.2	-3.5		
'63	3,400.0	6.3			'81	6,500.4	1.4		
'64	3,750.0	10.3			'82	7,090.0	9.1		
'65	3,890.5	3.7			'83	7,745.6	9.2		
'66	4,280.0	10.0				(億斤)	(%)		

資料出處：「中國農業年鑑 1980」(北京：農業出版社，1981)，p. 34.

中國研究所編，「新中國年鑑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東京：大修館書店) 참조.



〈그림 1〉 食糧生産量 變化(1949~1983)

增加를 나타냈다. 1980년, 1981년에는 약간의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1982년, 1983년에는 년 9% 이상의 生産量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그림 1〉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生産責任制期의 食糧生産量은 文革以後 體制整定期보다 급격히 성장하였다. 生産責任制의 실시 이후 農業生産力의 變化에 따른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紅旗評論員은, “建國以來 우리나라의 農業成長率은 다른 開發途上國에 비하여 대대적으로 신장되었다. 더우기 1979년 이후 農村經濟改革의 成功으로 農村經濟가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發展하여 世界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 個人平均食糧保有量은 1949년 418근에서 1984년 791근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數値가 높지는 않지만 대단히 큰 성과이다”⁶⁰⁾라고 주장하였다. 니콜라스 라디(Nicholas R. Lardy)교수는, “1978년 이후 中共의 곡물산출고는 年平均 5%의 비율로 증가하여 3억 5백만톤에서 4억 7백만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1957년부터 1978년까지 달성한 成長率 2.1%보다 2배가 넘는다”⁶¹⁾고 주장하였다. 生産責任制의 실시 이후 農業生産力의 向上은 선명하게 나타난다. 勞動效率性 역시 機械化의 확대와 物質的 誘因에 의한 勞動積極性을 유도함으로써 向上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生産責任制는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에 크게 위배됨이 없다. 비록 완전한 計劃經濟나 集團의 經營을 中心으로 한 混合經營形態는 아니라 할지라도 基本的인 면에서 計劃經濟를 주로 하고 있으며, 個別的 經營을 중심으로 하여 集團의 經營을 겸비하고 있다. 生産責任制가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을 완전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은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60) 紅旗評論員, “堅持社會主義導路,” 「紅旗」第四期, (1987. 2), p. 22.

61) Nicholas R. Lardy, “Agricultural Reform and The Rural Economy,” in Rhee Sang-Woo ed., *op. cit.*, p. 179.

2. 中共農村經濟의 具體的 現實

生産責任制가 中共農村經濟의 具體的 現實을 어떻게 結合시키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中共의 農村經濟가 當면한 現實에 근거를 둔다. 現在 中共에는 總人口의 86.1%인 8억 5,702 만명이 農村에 居住하고 있으며 적어도 7억 7,500 백만 정도가 全國土의 10.4%에 해당하는 약 9,950 만 ha의 耕地에서 農業에 종사하고 있다.⁶²⁾ 또한 현재 中共農村의 現實의인 問題에 대하여 紅旗編輯部는 “우리나라 社會主義의 初期段階에서 가장 큰 實地는 우리가 이미 社會主義制度를 建立하였으나, 여전히 生産力이 發展되지 못하고 經濟·文化가 낙후된 상태에 처해 있다. 게다가 10억 人口를 갖고 있음으로서 社會主義建設에서 가장 먼저 當면한 問題는 貧困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⁶³⁾라고 주장하였다. 즉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은 과다한 人口가 집중되어 있고 낙후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農業의 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勞動力을 기초로 하여 生産力을 向上시켜야 한다. 따라서 鄧小平體制는 物質的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勞働의 積極性을 유도하는 生産責任制를 실시하여 農業生産力의 向上을 가져왔다. 이 결과 中共의 農民들은 貧困으로부터 탈피하고 점차로 生活이 向上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9월 1일자 北京發 ‘新華社’ 통신은 “과거 6년간에 中共 農村에서는 經濟改革을 거쳐 食糧의 安定的·持續的 增進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 農民의 食生活은 향상되고 商品食糧도 증가하고 特畜業, 養殖業, 食品加工業의 發展을 위한 유리한 條件이 조성되었다”고 보도했다.⁶⁴⁾

生産責任制는 中共農村經濟의 현실적 상황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中國의 農村經濟體制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였다. 전통적인 中國의 農村經濟에서 土地의 所有權은 나라, 즉 임금에게 있었다. 임금의 토지는

62) 河地重藏, “農業制度의 改革,” 安錫教編, *op. cit.*, p. 220.

63) 紅旗編輯部, “論黨的十一屆三中全會以來的路線,” 「紅旗」第七期, (1987. 4), p. 3.

64) 廣瀬一, “中共農業의 허상과 實像—一萬元戶는 꿈속의 꿈,” 「共產圈研究」, 1985. 12, p. 56.

관리들에게 위임되었으며 農民들에 의해 耕作되었다. 農民은 관리들과 小作關係를 맺어 土地를 耕作하였으며, 일정량을 관리와 임금에게 납부하였다. 現在 生産責任制도 生産隊에 割當된 土地를 個別家戶에 分配하여 耕作케 하고 生産量의 일정량을 國家와 集團에 납부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專門的인 用語를 使用하지 않더라도 中共의 새로운 農業樣式인 生産責任制와 다를 바가 없다.⁶⁵⁾

生産責任制가 中共農村經濟의 현실적 상황 및 전통적인 農村經濟體制와 가지는 유사성은 農民들의 요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農村經濟制度로 급속히 정착하여 갔다. 中共黨은 1981년 1월 1일 발표한 「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에서 “農業生産責任制는 이미 90% 이상의 農村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각종 형태의 責任制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包產到戶와 같은 형태도 ‘社會主義經濟의 組織部分’⁶⁶⁾이라고 선언하였다. 生産責任制의 實踐的 結果가 말하여 주듯이 生産責任制는 中共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이룩하여 가고 있다.

3. 中國式 社會主義의 發展

鄧小平體制에 의해 실시된 改革政治의 목표는 ‘中國式 社會主義’의 建設이다. 中國式 社會主義의 建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인 原理와 中共의 구체적 현실이 결합되어 이룩된다. 鄧小平體制는 4個現代化 달성으로 中國式 社會主義建設의 토대를 삼으려 하였다. 따라서 4個現代化 달성을 위한 實用主義路線 추구는 中國式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방법이 었다.

鄧小平體制的 中國式 社會主義는 두 개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즉 4개항의 基本原則堅持와 實用主義路線의 추구이다. 社會主義的 發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i) 社會主義路線堅持, ii) 프롤레타리아독재堅持, iii) 共

65) 국회도서관 자료국, “中共農場의 改革實態—人民公社時代의 終末,” 「海外事情」 제41호, (1983. 1.30), p. 60; U.S. News & World Report 1983.1.17.

66) 中共中央轉發, *op. cit.*

産黨領導의 堅持, iv)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思想의 堅持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⁶⁷⁾ 또한 鄧小平體制는 階級鬭爭에 의한 社會主義發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生産力 向上에 따른 社會主義發展을 추구하고 있다.⁶⁸⁾ 따라서 生産力 向上을 위해서는 實用主義路線의 추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두 개의 전제를 가지고 鄧小平體制는 4個現代化 달성을 위한 經濟改革을 실시하였다. 4個現代化 달성의 가장 우선적인 면은 農業이었다. 鄧小平體制는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로서 生産責任制를 실시하였다. 生産責任制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成功的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는 農業을 기초로 全産業을 발전시킨다는 鄧小平體制의 기본적인 經濟政策에 부응하여 中國式 社會主義發展의 초석이 될 것이다.

V. 結 論

鄧小平體制는 中共農村經濟의 社會主義的 改造로서 生産責任制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生産責任制는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과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을 결합시킨 中國式 農業의 社會主義的 改造였다. 生産責任制는 기본적으로 착취제도가 소멸된 상황에서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社會主義 經濟體制에서 필연적으로 堅持되어야 할 勞動에 따른 分配原則을 고수하여 能率主義로 勞動效率性 向上을 기하고 있다. 計劃經濟原則과 集團的 經營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완전한 市場經濟와 個別的 經營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社會主義農業의 기본적인 요건을 약화시킨 것은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보조적인 수단으로 市場經濟의 도입은 中共大陸의 광활성을 반영한 것이며, 個別的 經營의 강조는 生産力 增大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農村經濟制度를 반영한 것이다.

67) 鄧小平, “堅持四項基本原則,” 『鄧小平文選 1975~1982』, pp. 150~151.

68) Chiang Hsin-li, *op. cit.*, p. 61.

社會主義建設의 初期段階에 있는 中共은 社會主義發展을 위하여 무엇보다 生産力의 向上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中共의 社會主義的 發展은 農業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農業生産力 向上이 중요한 문제이다. 즉 中共農村經濟를 낙후된 상태에서 탈피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鄧小平體制는 農業生産力의 向上을 위하여 生産責任制를 실시하였다. 生産責任制의 실시로 農業生産力은 점차 향상되었지만 中共農村經濟가 資本主義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鄧小平體制의 경제개혁이 中共의 農村經濟를 資本主義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中共黨의 經濟的 統制能力에 달려 있다. 社會主義 初期段階에서 生産力 向上을 위한 鄧小平體制의 계속적인 開放化政策과 資本主義 요소 도입의 확대는 서방학자들이 우려하듯이 中共黨의 經濟的 統制能力을 초과할 수 있다. 社會主義建設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의 社會主義段階에서 生産力 向上을 위한 資本主義要素의 도입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토대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鄧小平體制의 經濟改革을 中國式 社會主義建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中共의 經濟가 社會主義的으로 發展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中共의 農村에는 많은 人口가 좁은 農地를 耕作하고 있기 때문에 生産力 向上을 위하여 勞動積極성을 유도할 수 있는 物質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부분적인 資本主義 經濟要素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은 社會主義發展을 위하여 4大堅持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과 調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生産責任制는 中共農村의 全域에 과급되었으며, 높은 農業生産力 向上을 가져왔다. 中共에서 農業의 발전은 제반 產業發展의 토대가 되어 中共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農業生産責任制의 실시를 통하여 社會主義農業으로 개조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社會主義發展과 中國式 社會主義의 建設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農業生産責任制는 社會主義段階에 있는 中共의 農村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中共이 社會主義的 發展을 통하여 共產主義로 발전될 경우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中共農村經濟의 구체적 현실이 결합된 상황에서 새로운 農村經濟政策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